

Vol.5

2022년 6월 반년간지

# 제주바투리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Vol.5 2022년 6월 반년간지 제주바투리



JRI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바투리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 제주바두리

《**제주바두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입니다.

Vol.5

2022년 6월 반년간지



제주시 이호동 골왓마을 방사탑1(1971)



제주시 이호동 골왓마을 방사탑2(1971)

**염원**

방사탑은 마을의 어느 한 방면에 불길한 징조가 보이거나 기가 허해 보이는 지형에 쌓아올린 돌탑으로, 액운을 막고 마을을 평안하게 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제주시 이호동 골왓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을 남쪽에 방사탑 다섯 기를 쌓고,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이 골왓마을 방사탑은 제주도 고유의 민간 신앙 및 마을 신앙을 보여주는 자료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두 기의 골왓마을 방사탑은 일본의 인류학자 이토 아비토(伊藤亜人) 도쿄대 교수가 1971년에 제주 마을을 조사 다니며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들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도 저 방사탑들이 골왓마을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출처: 이토 아비토, 2019,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강경희 편, 제주학연구원, 181-182.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5호(반년간)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김순자

편집위원 조정현, 김미진, 임승희, 김선필, 권미소, 김우리, 고은솔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각(064-725-4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900-1840 누리집 www.jst.re.kr



3



11



25



31

02 열린 창 방사담

06 발행인의 글 김순자

08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배영환

제주학 연구 기관 · 단체 탐방

10 제주문화원 김순이

제주학 토크아보기

14 사료로 읽는 제주 사람들의 밀항 경험 고성만

17 근현대 제주 여성들은 어떻게 일했을까? 강경숙

특집 제주역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20 제주역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찬식

22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역사 편찬 사업의 성과' 김우리

26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현황과 미래 김태곤

제주학 산책

29 18세기 제주의 생활상을 엿보다 강문종

31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와 시민배당 이재섭

33 조선을 놀라게 한 제주의 전통 모피 · 가죽패션 고순희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동향

36 2022년 상반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45 제주학 동향(2022. 1 ~ 6.)



표지 설명 '후꿈 천천히 허주 잘 될거라게', '양지에 바농짓엉 좋은 일 웃나'

제주동여자중학교(교장 조효섭)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과융합수업'(지도교사 이영옥, 현경희)에서 창작된 작품.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문장을 찾아 제주어로 변환시키고, 미술 시간에 그것을 시각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탄생된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품들은 6월부터 7월초까지 교내 곳곳에 배너 형태로 전시되었다. 독특한 제주어가 친근한 그림과 어우러져 학생과 교사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리라.

# 제주학의 꽃, 도민과 함께 피우리라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제주학연구센터를 책임지다 보니 가끔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 내용은 제주학의 발전 방향에서부터 센터가 고쳐야 할 점과 요구사항, 제주학 관련 질문 등 다양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 다. 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주어를 활용한 전시회가 열리는데, 제주어 관련 일을 하 는 내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며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주어 문구와 제주 관련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 어우러진 중학생들의 참신함이 묻어 있는 배너 작품이었 습니다.

이 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해 제작한 배너들은 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학교 분위 기를 싹 바꾸어 놓았고, 친구는 그 감동을 제게도 전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시회는 국어과와 미술과 교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작품 소재가 소중한 제주어와 제주 문화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주제는 우리 센터가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이기에 감사함이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인 전시 소식과 친구랑 미술과 선생님이 보내준 몇몇 작품만을 보고도 이리 울렁거림이 큰데 직접 전시를 준비하 고, 관람한 학교 구성원들의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다 뻥니다.

우리 센터는 지난 2월 14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큰 사 무실을 마련하고, 제주학 자료를 공유할 조그마한 공간 ‘살레’도 생겼으니 도민들에게 자 랑(?)하고 싶었습니다. 제주학은 도민들의 삶과 언어, 민속, 역사, 자연 등을 연구하는 통 합학문이기에 도민들과 소통할 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학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들은 제주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제주학 을 소통하는 메신저가 되어 줍니다. 더욱 제주학을 소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는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4일 제주학 자료실 ‘살레’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

다. ‘제주학의 꽃, 도민과 함께 피우리라’는 표어를 내걸고 소박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실도 개방하고, 제주학을 소통할 명사 초청 강연도 열었습 니다. 이런 소통의 장은 센터가 있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제주학은 도민들과 함께할 소 중한 자산이기에 우리 센터는 제주학 꽃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 겠습니다.

자료실 개방 행사를 하고보니 아직은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공간도 정말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넓히고, 자료를 보완해 나가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도정은 101개 도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과 문화가 빛날 수 있기 위해서는 수 천 년 간 이 땅위에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 문화를 오롯이 이해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인의 뿌리를 연구하는 제주학, 그리고 제주학의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우리 센터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주학의 성장과 대중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호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알차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제주어와 제주 문화의 미래를 밝게 비춰준 제주동여자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제주학의 밝은 미래를 봅니 다. 학교 현장에서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든 ‘감 동의 선물’을 도민들과 나누고 싶어 <제주바투리> 5호 얼굴로 꾸며봤습니다.

귀한 글을 주신 제주대학교 배영환·강문중·고성만 교수님, 고순희·이재섭 박사님, 제 주문화원 김순이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 연구위원님, 제주문화진흥재단 박 찬식 이사장님, 세계유산본부 김태곤 문화유산정책팀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더 나은 기관 지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도서출판 각 박경훈 선생님과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센터 연 구진 선생님들의 노고와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바투리**

# “제주학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해야”



배영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21세기는 흔히 생태주의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너와 내가 공존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약자는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타자(他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나갈 때 인류와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이후 줄곧 중앙 집중화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집중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중앙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역에 관한 관심과 지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여느 지역보다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이런 양상은 ‘제주학’에 관한 높은 애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학’은 넓은 의미로는 제주와 관련된 모든 학문으로 볼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과 자연환경 중심의 제주와 관련된 학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학’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학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학’은 다른 누군가가 연구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제주인이 해야 하는 학문이며, 그 중심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 중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을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제주학연구센터’의 존재 가치를 아직 잘 몰라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센터가 가칭 ‘제주학 진흥원’ 등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동력으로 좀 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력 충원과 연구원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현재의 연구 인력으로는 제주학 연구를 수행하기에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수

행하기보다 연구 관리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관리의 업무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연구원의 처우 개선 문제, 신분 보장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제주방언관’ 건립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방언관’은 제주 방언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를 알리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손색이 없으므로 향후 ‘제주방언관’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주학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제주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의 다양성과 신진 연구자의 폭넓은 유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주학을 연구하려는 신진 연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연구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연구비의 확대와 다년 과제 개발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지원해 주는 과제 수도 늘려야 하고, 연구비 또한 증액되어야 합니다. 연구비의 질적, 양적 확대를 시행한다면 우수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주학 관련 학위논문을 받은 연구자에게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연구비 지원 등의 연구자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성격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개발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장기 공동 과제의 경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담당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섯째, 지역 내 제주학이나 인문학 연구소, 그리고 전국의 지역학 연구 단체, 나아가 세계의 여러 지역학 연구 단체와 함께 지역학 연구 개발과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와 경험 등을 공유하여, 지역학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진흥원’으로 탈바꿈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주바둑리**

# 향토사료 발간과 기록화 사업, 교육 및 전통 문화 공연으로 제주 문화 진흥에 앞장선다

김순이 (제주문화원 원장)

‘제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1994년 8월 창립되었고, 2008년 7월 1일자로 ‘북제주문화원’과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문서적 번역 사업을 포함한 향토 사료 발간, 급변하는 제주의 모습을 문자와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록화 사업, 제주 시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교양 강좌 및 제주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좌 운영, 용연음악회와 같은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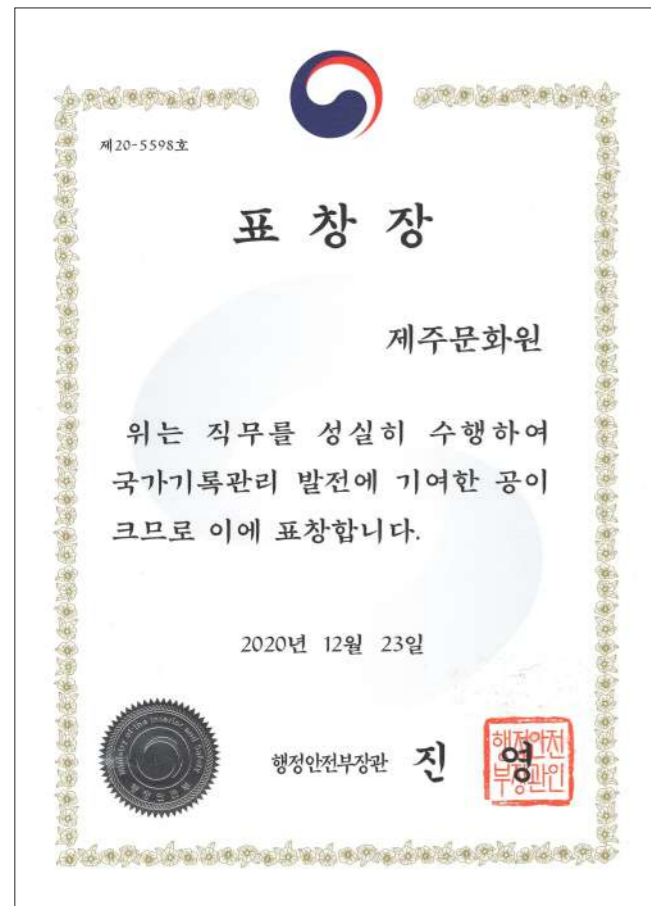
문화 공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토 사료 발간 사업은 2021년도 말 기준, 총 81권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17세기 말 제주 목사 이익태가 저술한 『지영록』은 1997년에 제주문화원이 번역본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기록된 ‘표류록(漂流錄)’이 세간과 사학계의 조명을 받으면서 2018년 10월 국가 보물 제 20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래에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제주인의 생활상을 담은 ‘제주생활문화 다큐멘터리’ 2편과 ‘구술영상자료집’ 15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 제작은 지면상의 글과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당대 제주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제주문화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주문화원은 2018년부터 ‘우리 마을 역사문화기록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급변하는 제주의 마을에 대해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 집필한 결과물인 『함께 만드는 마을지』가 용수리, 교래리, 어음1리, 장전리, 수산리 등 총 5개 마을에 걸쳐 편찬되었습니다.

이러한 향토사료 발간 및 기록화 사업의 결실로, 제주문화원은 2020년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수여하는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유공 표창은 국가



향토문화발전 세미나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록관리 연구, 교육 등 기록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제주도내 주요 학술연구기관 등 어느 단체도 수상한 적이 없는 제주문화원만의 유일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제주문화원의 부설 단체는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이 있습니다.

2010년에 창설된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는 제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대학을 수료한 제주 시민들로 이



실버합창단 2017 창단기념 연주회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 봉사 공연



용연선상음악회

루어진 단체입니다. 현재 63명으로 구성된 본회는 회원들 간의 단순한 친목 모임의 성격을 뛰어넘어,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사료 사진자료집 『공감 7080』과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생활문화』 1~4권 발간 및 '제주생활문화 다큐멘터리'와 '구술영상자료집' 제작은 향토문화연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기록이 내일 미래의 역사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향토발전세미나'를 개최하여 매해 조사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2011년에 창단된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은 현재 5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연선상음악회, 제주도 민체전, 제주국제관악제 등 도내 주요 문화 체육 행사에 참여하면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본합창단의 실력은 2016년 국립합창단에서 주최한 '제5회 전국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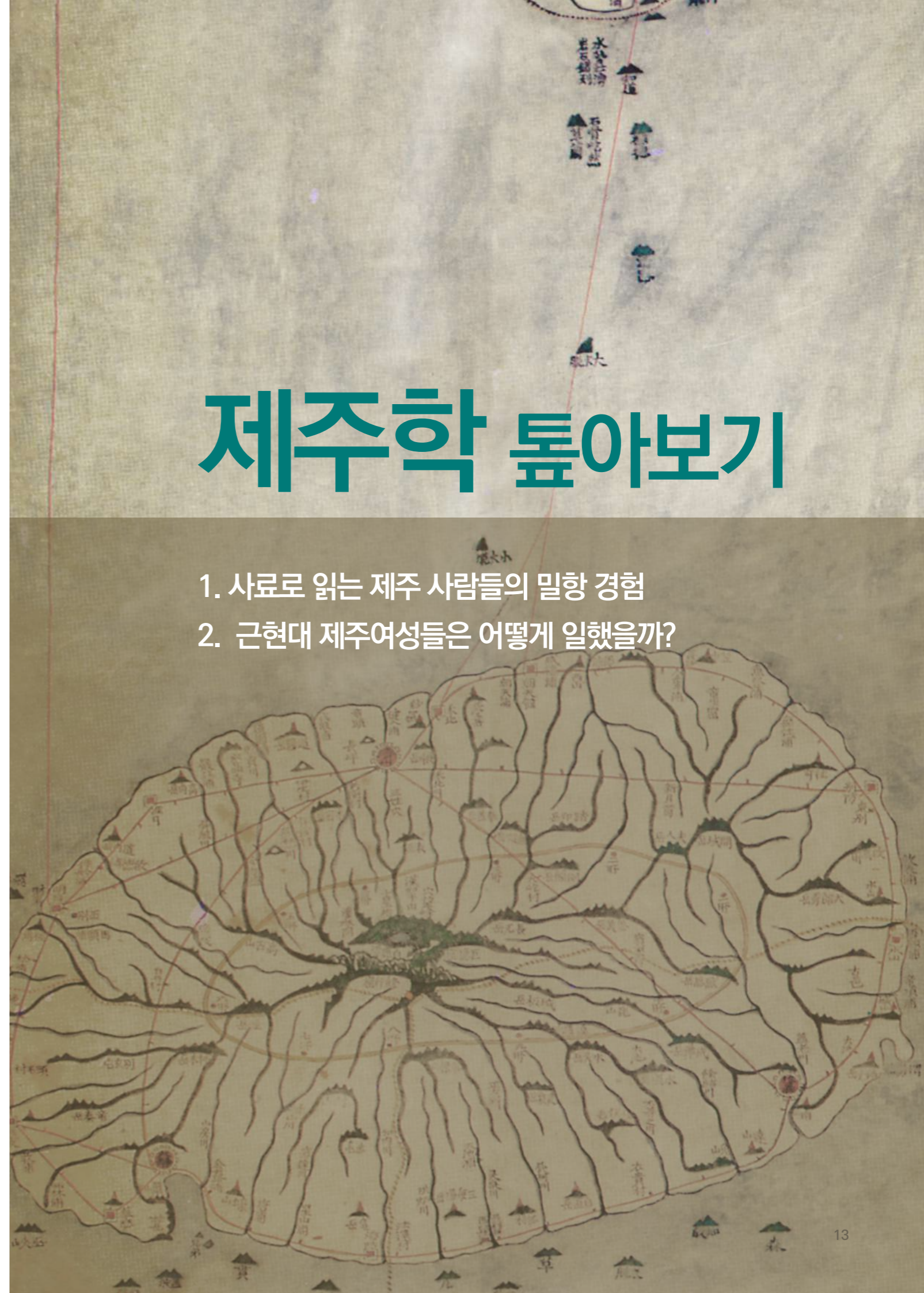
미 그 실력을 대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창단된 제주문화원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은 현재 1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센 장사 오찰방', '김녕사굴이야기', '명의 진국태', '의녀 김만덕' 등 제주의 신화와 전설,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단원들이 직접 제주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1회 연습을 하고 있으며, 매년 6회 이상 제주시 관내 양로원, 경로당, 유치원 등에서 봉사 공연을 하면서, 제주의 신화와 전설, 역사 인물을 알리고, 제주어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문화원은 사라져 가는 우리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강좌 개설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교양과 지식 함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주문화원의 힘찬 발걸음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바투리**

# 제주학 톺아보기

1. 사료로 읽는 제주 사람들의 밀항 경험
2. 근현대 제주여성들은 어떻게 일했을까?





# 사료로 읽는 제주 사람들의 밀항 경험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48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를 ‘탈출’하여 일본 각지로 건너갔던, 혹은 건너가려 했던 사람들의 이동 경험은 대부분 구술 증언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면담을 통해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주관성, 개별성, 부정확성이라는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재단될 수 없는 현실의 삶’에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면서, 국민국가의 외부 혹은 틈새 사이에 끼여 사각화, 익명화되어온 잔여의 영역이 부상되는 성과를 얻어 왔다.

문헌 기록의 발굴과 해석은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영역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경자(越境者)들의 이동을 명징하는 사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에

히메현으로의 불법 입국 관리(Certified Official Translation: Control of Illegal Entry into Ehime Prefecture)』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일본 에히메현(愛媛県) 경찰이 작성하여 그 지역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영연방 점령군(British Commonwealth Occupation Force, BCOF)에 제출된 보고서로, 1948년 10월 5일에서 14일 사이에 에히메현 가와노이시(川之石) 인근에서 나포된 6척의 선박과 거기에 타고 있던 290명에 관한 기록이다. 그 가운데 285명의 본적지가 제주도(SAISHUTO)로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 2’에는 290명의 ‘불법 이민자 명부(List of Illegal Immigrants)’가 전체 분량의 절반에 가까운 21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그중 남성이 216명,

연령은 20대와 30대가, 직업은 농업이 주를 이룬다. 한림면(KANRIMMEN) 출신자가 196명으로 가장 많고, 그중 옹포리(ŌPORI) 출신자가 37명, 한림리 34명, 귀덕리(KITOKURI) 17명 순이다. 다음으로는 애월면(GAIGETSUMEN) 출신자가 37명, 대정면(TAISEIMEN) 25명, 안덕면(ANTOKUMEN) 18명 순이다. 또 도항 목적지를 간사이(関西) 지역으로 진술한 사람이 182명으로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오사가 158명, 효고 17명, 교토 7명 순이다.

이 보고서의 존재는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가 호주 전쟁기념관에서 입수하여 2005년 제주4·3연구소에 제공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정치학자 무라카미 나오키(村上尚子)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체포된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 본적지, 직업, 일본 체제력, 교육 수준, 목적지, 도항 목적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비롯하여 ‘불법입국자’로 명명된 제주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행방을 좇는 실증적 검증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은 2014년 무라카미로부터 보고서의 원

본을 입수하여 옹포리와 한림2리를 대상으로 ‘불법입국자’로 기재된 제주 사람들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 동안 보고서 상의 인물을 특정짓는 성과를 얻지 못한 까닭에 유의미한 결과를 공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불법 이민자 명부’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에히메 지역을 관할했던 영연방 점령군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먼저 이 지역 경찰이 체포된 밀항자들을 취조했고, 그 과정에서 수합된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1948년 10월 25일 영연방 점령군에 제출, 같은 해 11월 13일에 공식 번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법입국자’들의 한국어 진술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불법 이민자 명부’로 번역, 편집되는 과정에 에히메현 경찰의 취조와 심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일본어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불법 이민자 명부’ 상의 고유명사, 특히 본적지, 이름과 같이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과 인명이 일본어의 음독(音読み)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입국자’들의 신상 정보가 기록되는 과정에 일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행위자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은 선행 연구자들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 명부’에 등장하는 개개인을 특정 짓는 작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명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일본어의 음독 표기 방식으로 기재된 제주 사람들의 이름을 해독하는 작업이 오랫동안 난항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일례로 ‘명부’ 상의 ‘CHO Shin-go’로 표기된 이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CHO’가 조(趙) 혹은 장(張)으로, ‘Shin’이 신(臣 또는 信), 진(振 또는 真 또는 慎), 심(心) 등으로, ‘go’가 오(梧), 호(胡), 기(期) 등으로 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우의 한자어를 조합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 명부’의 1차 해독만으로 체포된 제주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짓기 어려웠던 한계 외에도, 설령 다양한 경우의 한자어를 조합하여 특정 인명을 추측해 낸다 하더라도 교차 비교의 대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법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비’에서 확인된 오창화·김성호·김원진의 표석(2022년 1월 31일 필자 촬영)

흠어진 조각들을 끼워 맞춰 ‘불법입국자’로 호명된 제주 사람들을 특징하는 작업은 알파벳 표기의 일본어 발음과 인명 한자를 조합한 여러 가능성 높은 인명을 본적지별로 정리한 후 강제동원자 명부, 4·3 ‘희생자’의 명부와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입국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흠어진 조각들을 끼워 맞춰 ‘불법입국자’로 호명된 제주 사람들을 특징하는 작업은 알파벳 표기의 일본어 발음과 인명 한자를 조합한 여러 가능성 높은 인명을 본적지별로 정리한 후 강제동원자 명부, 4·3 ‘희생자’의 명부와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강제동원자 명부는 국가기록원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로 일반 공개되고 있다. 명부에는 일제강점기 말기 아시아-태평양 각지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자의 성명, 출생연도, 본적지(도/군), 동원지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하면 추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의 명부 자료 역시 ‘불법 이민자 명부’ 상의 정보를 교차 비교하는 데 유의미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제도의 영역 외부에서, 제주4·3 위원회가 구축한 ‘희생자’ 명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신고가 개시된 직후의 ‘제5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2001)부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2021)까지 매년 참배객들에게 배부됐던 21권의 팸플릿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만 팸플릿 상의 ‘희생자’ 명부에는 정부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한 ‘희생자’의 출신 지역과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더 상세한 정보는 4·3공원의 ‘각명비’나 ‘행방불명자의 표석’에 각명된 기록과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

다.(14-15쪽) 물론 미(未)신고 혹은 비(非)신고와 같이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거나, 심의 과정에서 철회 혹은 불인정 되는 경우 교차 비교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에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 경찰과 체포된 사람들 간의 취조와 심문, 진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작성, 편집하는 과정에서 허위와 위조, 선별과 침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에히메현으로의 불법 입국 관리』와 같은 관련 자료를 해독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덧붙여 추방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제주 사람들이 당면한 목적, 즉 성공적인 입국과 안정적인 정착을 담보 받기 위한 전략적 말하기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대응했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1948년을 전후한 시기에 4·3을 계기로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잠행했던 제주 사람들의 이동 경험을 보여주는 일차 사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무라카미의 지적처럼 ‘4·3의 혼란을 피해서 도일한 정치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실증이라는 점 외에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자료들 간의 교차 비교를 통해 4·3 시기 행방불명된 개개인의 기록과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이 글은 참고 “KIN Gen-chin 찾기-1948년 연영방 점령군 보고서에 기재된 제주 출신 ‘불법입국자’ 분석”(『濟州島研究』 57, 2022, 49-70)을 가필·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 근현대 제주 여성들은 어떻게 일했을까?\*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이자 드라마 ‘파친코’는 한국 여성의 서사를 통하여 재일한국인 4세대의 삶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인 ‘선자’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본으로 넘어가 뿌리내린 1세대 재일한국인이다. 이 드라마는 선자의 삶을 통하여 근현대 시기 디아스포라의 삶을 견디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강인한 모성’을 보여준다. 한편, 낯선 일본 땅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선자에게서 제주 여성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제주 여성의 자립적 생활상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제강점기 재일한국인 사회에서도 제주도 출신 여성들은 강한 생활력으로 유명했다.

이처럼 강인하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노동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전쟁 등의 위기와 남성의 부재를 계기로 활성화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주 여성들의 노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의 역사가 근현대 제주 역사로 인정받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에 이 글은 제주 여성의 노동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근현대 변화 속에서 제주 여성의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의 아이디어는 2021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서 발간한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사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저자: 강경숙·진관훈·문순덕·김준표·고민지)에 기반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 가족 생계를 위하여 주요 역할을 해 왔던 제주 여성의 노동은 근대 이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은 중앙에 바칠 진상의 부담과 수탈의 고역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이에 제주섬을 떠나는 도민들이 대거 생겨났고 조선 후기 200년 동안 제주도민들의 출륙을 금지하는 왕명이 떨어질 정도였다. 당시 군역과 진상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남성들의 이탈이 많았고, 이에 남성들의 역할이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되기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미역과 전복을 진상하는 잠수인 ‘포작’이라 불리는 남성들이 역을 피해 출륙을 하자 그 아내가 대신 그 역을 부담해야 했다. 이것이 여성 어로집단인 ‘제주 해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는 ‘여다(女多)의 섬’이 되어갔다.

특히, 조선시대 제주도민에 대한 출륙금지령은 여성의 경우 육지인들과 혼인을 금하는 것을 국법으로 정할 만큼 여성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적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화는 제주 여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제주도민들에게 근대화는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신민의 역할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거기에 더해 당시 제주 여성들은 가부장적 유교주의의 이중 속박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해녀의 ‘바깥물질’은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 해녀의 이주(移住), 즉 제주 해녀 출가는 19세기 말, 부산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제주 해녀들은 조선 전역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하였다. 1910년대에 2,500여 명이었던 출가 해녀의 수는 1930년대에



해녀들의 물질모습



제2군대학 김판의 도항자들. 1934년 8월 25일, 마쓰다 이치치 촬영

는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는 현재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녀보다도 많은 숫자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서도 선자는 10대가 되기 전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시작한다. 선자의 물질은 부산으로 바깥물질을 떠난 제주의 해녀가 전수해 준 것이었다. 당시 제주 해녀의 노동이야말로 현금화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원으로 제주 경제의 토대였으며,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제주 해녀의 물질은 '근면하고 강인하며 역척스러운' 제주 여성들의 이미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출가 해녀를 비롯한 해녀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이에 제주 해녀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20년에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조직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녀조합의 조합장이 당시 일본인이었던 제주시사가 겸임하는 어용 조합으로 변질되면서 조합의 횡포가 날로 심해갔다. 조합은 점차 해녀의 권익보호 기관이 아니라, 이중(二重) 수탈기관으로 전락했다. 해녀들은 반발하였고, 이는 1932년 구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녀투쟁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제주 여성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일본 오사카의 방적공장 등의 공장에서도 일했다. 당시 군수산업이 발달하여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하였고 제주도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으로 인식되면서 제주도민의 일본 진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값싼 노동력의 이동 수단으로 1922년 제주-일본(오사카) 간 직항로가 개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방적공은 제주 여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으로, 그들의 대부분은 오사카부 남부 지방에 소재한 방적회사에 취업하고 있었다. 당시 제주 출신 방적여공의 대우는 매우 열악했다. 저 연령이 많았던 그들은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저임금, 비위생적인 환경의 기숙사 생활 등 온갖 고생을 겪었다. 이처럼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로 변신한 제주 여성들이 일본에서 보낸 돈이 있었기에 식민지 시대 제주 경제는 무난할 수 있었다. 이들은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애써 모은 돈을 고향의 가난한 가족들에게 보냈고, 이 송금액이 제주도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큰 것이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지만, 해방 후 제주는 혼란 그 자체였다. 해방 직후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당시 20만 남짓이던 제주도의 인구는 6만 가량 불어났

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또한 1947년부터 발발한 제주4·3사건은 제주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많은 성인 남성들이 희생되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고한 양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4·3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족들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가족 내 남성 노동력의 부재로 인한 공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어린 딸들의 노동력으로 대체되었다. 4·3 이후 제주 여성들은 무엇보다 폐허가 된 집을 복구해야 했다. 또한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다. 생선, 팥감, 미역 등 닥치는 대로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일을 하거나 해안 마을에서는 물질이 살림의 밑천이 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제주 여성의 노동과 네트워크는 마을과 지역 사회 재건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가부장적 체제하에서 제주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잃고 고된 노동 속에서 삶을 견디어 나갔다.

해방 이후 과도기를 거쳐 한국 사회는 국가 중심의 지역 개발을 통한 산업화 단계로 이행되었다. 제주의 지역 개발은 196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전작(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자급 농업이었으나, 이후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작물 중심의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타 지역의 1차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성 노동력의 확대와 3차 산업의 여성화라는 산업 간 성별분업을 가져왔다. 이는 1960년대 이전 자급농업 하에서 높은 경제력을 보였던 여성 노동 가치의 하락과 남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화와 지역 개발 이후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자급 경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여성 노동이 남성 중심의 가구 내부로 귀속됨으로써 여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비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이 강화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그 지위

가 이동했다.

요컨대, 근현대 제주 여성들은 제주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남성의 부재를 딛고 생계부양자-돌봄제공자 역할을 모두 해왔다. 산업화 이후에는 국가와 남성 중심의 지역 개발을 통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여성의 노동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그 지위는 더욱 열악해졌다. 이와 같은 근현대 제주 여성의 노동 양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제주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과 지역공동체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둘째, '강인한 여성 또는 어머니'라는 제주 여성의 정체성은 본질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형성물'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 여성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변화 또한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 지금과 같이 제주 여성의 강인한 모성을 본성적인 것으로 미화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강인한 제주 여성' 담론이 실제 제주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돌봄과 평등의 관점에서 제주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실천함으로써,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후세대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제주바투리**

참고 문헌

강성의, 1994,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식, 2005,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박찬식, 2019, "제주 역사문화와 여성의 역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2019 제주여성 국제포럼: 아시아 여성의 일, 역사, 미래』,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제주4·3연구소, 2019, 『4·3 생활사총서1 -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21,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서』.  
 한림화, 2005, "해방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홍정은, 2009, 『총련계 재일조선인여성의 민족정치학과 '어머니 정체성': 일본사카부 이주 여성들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후지나가 다케시, 2011, "재일 방적 여공의 노동과 생활 -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여성사II - 일제강점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역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찬식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 제주역사 연구 계보

통사로서 제주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성과로는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을 들 수 있다. 유학적 관점에서 한문으로 저술된 전근대적 역사서이지만 편년의 방식에 따라 제주통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주제의식과 사료 실증, 인과관계의 논점을 갖춘 근대적인 역사 저술로는 김봉현의 『제주도역사지』(1960)와 김태능의 『제주도사논고』(1982)가 첫 성과가 아닐까 한다. 이어서 김봉옥·홍순만·김인호·김찬흡·오성찬 등 이른바 향토사가들이 1980년대 이후 연구를 담보했다. 김봉옥의 『제주통사』(1987; 증보판, 2000), 홍순만의 유배인·비석 관련 연재물, 김찬흡의 각종 제주역사 인물 사전 편찬물, 오성찬의 마을지 편찬물 등을 그 성과물로 열거할 수 있다.

1981년 제주대학교 사학과가 창설된 이후 고창석·권인혁·이청규·진영일 등 학과 교수들의 본격적인 제주역사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선사시대로부터 탐라시대, 중세사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제주역사 연구의 공백이 차츰 메워져 갔다. 1989년 제주도사연구회의 창립, 1980년대 후반 이후 고고학계의 발굴 성과, 1990년대 후반 제주사 정립 사업의 추진 등이 이어졌다. 제주대 사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수로 부임한 김동전, 박찬식, 강창화, 고재원, 전영준, 양정필 등과 타 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하고 귀향한 김일우, 홍기표, 이영권 등이 2세대 후계 연구자 군을 형성했다. 연구 대상 시대와 주제가 확장되었으며,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속출하였다.

제주역사 연구 3세대는 제주대 사학과에 대학원 석박

사 과정이 개설된 이후 등장했다. 연구층과 주제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내적 발전의 정체와 빈곤을 겪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타 전공분야(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국문학, 한문학 등)의 연구자들에 의한 제주역사 연구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수 이주민 입도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역사(주강현, 유홍준 등) 저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 관점과 시대구분

제주역사 연구의 성과는 1980년대 이후 편찬된 『제주도지』 역사편에 시대별로 정리되었다. 1982년, 1993년, 2006년, 2019년 네 차례 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지 역사편은 주로 1세대와 2세대 연구자들이 집필을 담당했다. 또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서 『탐라사』(2010)를 간행한 바 있다. 개인이 집필한 본격 통사로는 김봉옥의 『제주통사』가 유일하다. 김일우, 김동전, 조성윤, 박찬식 등이 공동으로 언론사 연재를 통해 통사 서술을 시도했으며, 이영권은 독특한 문체로 제주역사의 주제별 탐색 결과를 단행본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간행된 제주통사 서술의 관점은 시대구분에서 엿볼 수 있다. 주로 고려시대의 제주, 조선시대의 제주, 일제강점기 제주 등의 시대구분을 통해 전체 한국사 속에서 제주역사를 바라보자는 보편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탐라사와 탐라 멸망 이후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점이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제주 공동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제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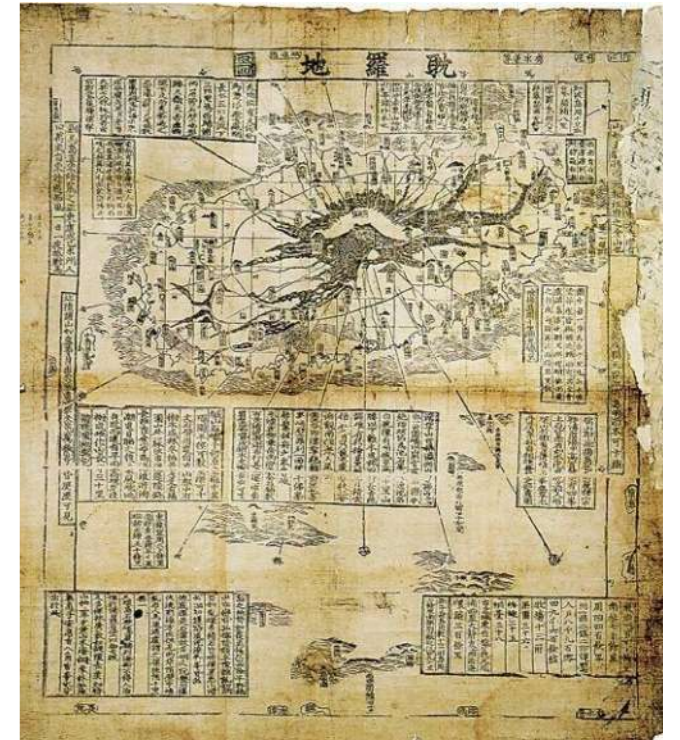
고 생각한다. 한국사와 민족사의 범주가 아닌 제주도 주변 지역의 다양한 인간집단과의 관계사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탐라사, 중세사, 몽골지배 100년사, 근현대사 등도 색다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역사의 고대-중세-근대를 따로 설정하여, 고대사 탐라, 중세 전기 탐라(탐라와 고려), 중세후기 제주(제주와 조선), 근현대 제주(1901년~식민지시기~4·3과 이후)로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특히 섬의 역사(섬 정체성, Insularity)와 해양사의 관점에서 제주역사를 내적 발전과 개방·교류의 역사로 재정리하면 좋겠다. 지중해 역사를 집대성한 아날학파의 대가 브로델은 “물길은 인류의 운명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4천 년 전 고대문명을 이룩한 크레타섬의 성장 원동력을 이주와 국제관계, 무역으로 지적한 바 있다. 탐라와 제주의 역사 연구자들이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와 대외무역의 관점에서 정리한 양정필의 연구(제주특별자치도지 원고), 이영권의 해양유민에 주목한 연구, 박찬식의 해녀역사, ‘이재수란’ 연구 등은 제주역사 연구의 전환점을 이루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제주역사의 시대구분 또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 남은 과제

역사 서술을 구슬 꿰기, 또는 날줄씨줄로 엮어내는 옷감 만들기 작업에 비유하곤 한다. 잘 꿰고 엮어내는 주체는 의지와 관점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제주역사 연구의 주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많다는 제주도 고문서 관련 박사논문 하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4·3 등 현대사, 탐라사 등 고고학, 생활사 등 제주도 특징을 보여주는 주제에 집중하는 연구가 취약하다고 보인다. 제주대 사학과를 비롯한 역사학계의 분발이 요구된다. 최근 일제 식민지시대 경제사와 문화사에 관련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고고학과 현대사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어서 다행이다.

제주 관련 사료의 발굴과 영인 및 역주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제주학연구소 및 제주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료 역주사업은 좀 더 전문인력을 집



1709년(숙종 35년)에 제작된 제주목 겸 전라방어영이었던 탐라의 지도. 이 지도는 1709년 제주목사 겸 방어사인 이규성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탐라지도는 방격법과 24방위선이 그려져 있는 아주 희귀한 황해 지도다. 이는 서양의 포르톨라노 해도(portolano chart)와 유사하다. 지도 여백엔 지도의 기록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산수(산과 하천)와 성보(성곽)가 교차하고 나서는 지점에는 나침반을 이용해 방위각을 설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지도를 읽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제작 기법은 18세기 중국에서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디서 이런 서양 과학 기술을 차용한 것일까? 알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정밀성 역시 이전 지도와는 현격히 발달해 있어서 놀라움을 따른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중 투입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기회에 관련 원사료의 공적인 소장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학문후속세대에게 전승되었으면 한다.

또한 통사적인 제주도사의 정립과 제주역사의 대중화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박물관과 서점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대만사, 유구역사 관련 역사 서적을 정작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어서 아쉽다. 『제주통사』, 『탐라사』 등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식견과 사론에 따른 통사의 서술과 대중적이며 체계적인 통사의 집필과 간행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주어질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도정의 출범에 따라 향후 역사박물관 설립, 탐라문화권센터 건립, 제주학진흥원 설립, 4·3추가 진상조사 등 제주역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묵직한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될 듯하다. 그럼에도 막상 제주역사 연구의 주체가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제주역사 연구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서 새로운 중흥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바둑리**

#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역사 편찬 사업의 성과'

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역사 편찬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근거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17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를 첫 번째 제주역사 자료총서로 발간하면서 역주 작업을 중점으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I~IV)』, 『제주의 고문서(I~IV)』,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I~VI)』, 『일본 소재 제주 자료집(I~III)』,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사료집(I~II)』

보고서』 등 현재까지 20여 권의 제주역사 자료총서를 출간했다. 대중화 사업의 일환인 '제주 고전 강독회'는 2017년부터 개설해 올해로 5년째 운영하고 있고, 2018년 '탐라사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3건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지난 2020년에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 제17412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역사 연구·조사에 있어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제주역사 편찬 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

수행 연도	추진 내용	수행 연도	추진 내용
2017~2021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승정원일기 濟州記事 I - 孝宗代』 발간 『승정원일기 濟州記事 II - 顯宗代』 발간 『승정원일기 濟州記事 III - 肅宗代(上)(下)』 발간 『승정원일기 濟州記事 VI - 景宗 英祖代(1724~1734)』 발간 학술세미나 '承政院日記, 제주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개최	2018	○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고대 탐라문화의 수수께끼-耽羅鏡과 度羅樂' 개최 ○ 제주 역사 인물 평전 발간 사업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고수선 傳』 발간 ○ 한국고문서학회 공동 제주 학술대회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제주' 개최
2017~2019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 번역 사업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일본어신문』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조선일보』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시대일보 외』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매일신보』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부산일보』 발간	2017~2019	○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 『영락리 등 15개 마을별 호적중초 영인본-보고서』 발간
2018~2021	○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사업 『제주의 고문서(Ⅰ)-제주 상창리 梁氏家 고문서』 발간 『제주의 고문서(Ⅱ)-제주 도두리』 발간 『제주의 고문서(Ⅲ)-제주 상예리』 발간 『제주의 고문서(Ⅳ)-제주 조천 김해김씨 金義正 일가』 발간  ○ 제주 고전 강독회 2018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30회/『南槎錄』, 『耽羅紀年』) 2019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40회/『南槎錄』, 『耽羅紀年』) 2020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18회/『南溟小乘』, 『耽羅紀年』) 2021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18회/『破間錄』, 『南宮博物』 등)	2019~2021	○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 사업 『프랑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Ⅰ)』 발간 『프랑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Ⅱ)』 발간 『濟州島現況一般-統監府財政監査廳(編)』 발간
		2020	○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사업 『유배 문화 자원 조사 보고서』 발간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사료집-유배사』 발간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사료집-유배시문학』 발간

[표] 제주역사 편찬사업 주요 성과

## 연차 사업

'제주역사 편찬 사업' 중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고문서 조사 해제 번역 사업', '제주 고전 강독회'는 연차 사업으로 올해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은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서 제주 기사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 5개 주제어로 발췌를 모두 수집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석까지 보충해 왕대별 역주서를 발간하고 있다.

효종대(1649~1659)를 시작으로 현종대(1659~1674), 숙종대(1674~1720), 경종·영조대(1720~1734) 발간을 마쳤고, 남은 영조대 역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종까지 지속적인 작업이 진행된다면 약 16,000건의 기사가 역주되는데 이는 조선시대 제주 실정에 관한 전반적인 심화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은 개별적으로 수행된 제주 지역의 고문서 발굴·정리를 공공 연구기관이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고문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작했다.

2018년 제주 양씨가 소장 상창리 고문서 100여 점을 발굴해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두리 마을 소장 고문서, 상예리 풍천임씨(豐川任氏) 일가 소장 고문서, 제주 조천 김해김씨(金海金氏) 김희정(金羲正) 일가 고문서 등을 발굴해 발간했다. 망실 위험이 있는 마을 소장 및 유력 문중 소장의 미공개 고문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 고전 강독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화 사업



제주고전강독회

의 일환으로 2017년 운영을 시작했다. 한문 원전을 강독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한문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원전을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독서는 『남사록(南槎錄)』,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을 포함한 관찬사료 및 문집을 다룬다. 5년간 매주 목요일마다 강독을 진행해 100회 차를 넘기고 있다.



**근현대 자료 편찬 사업**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편찬 사업’,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 사업’은 근현대 제주사 연구의 기초 토대를 위한 근현대 1차 사료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편찬 사업은 2017~2019년 3년간 연속 사업으로 진행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10여 개의 일제하 신문에 수록된 제주 기사를 추출해 번역·정리했다.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 사업은 2019~2021년 연속 사업으로 일본에 소재한 근현대 제주 관련한 자료들을 발굴·번역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프란게문고(1945~1949)’ 내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미디어 자료를 정리해 2권으로 발간했고, 190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제주도현황일반(濟州島現況一般)(1907)』을 번역·발간했다.

일본어로 발간된 신문에 수록된 제주 기사를 전수 조사해 번역한 사례는 처음이고, 이 자료들이 1차 사료라는 점에서 근현대 제주사 연구에 있어 의의가 있는 작업이다.

**조사 사업**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는 2019~2020년 제주 호적중초를 도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서귀포시 도순동을 시작으로 15개 마을이 보유한 호적중초 등 고문서를 2년여 간 현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호적중초 546책, 통적 218책, 민적부 및 호적부 53책 등 총 817책을 확인했고, 촬영·목록화 작업 후 마을별 영인본으로 제작했다.

‘유배 문화 자원 조사’는 2020년 제주에 산재하고 있는 유배 관련 역사 문헌 자료, 민·관 소장 유배 문학을 비롯해 관련 유적 등의 조사로 유배 문화를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유배사·유배 문학·유배 문학 콘텐츠 총 3개의 주제로 자료집을 발간해 제주 유배사 연구를 총망라하고자 했다.

**학술대회**

2018년 3월,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고대 탐라문화의 수수께끼 탐라복(耽羅鰓)과 도라악(度羅樂)’을 이틀간 개최해 일본에서 발굴된 탐라 유물의 실체와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규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고문서학회와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제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제주목의 결송입안 5건 등 17세기 제주목의 소송 양상을 소개했다.

2021년에는 ‘승정원일기, 제주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5년간의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의 성과 및 남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외 2018년 고수선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제주 여성의 선각자인 고수선의 일대기를 정리한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又忍 고수선 傳』을 발간하고, 2019년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일제강점기 출가해녀 입어문제 경과 및 어업조합 규약 등) 번역집 등을 발간하는 등 도내 연구 기관과 연계 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역사 편찬 사업은 제주의 역사 문화 유산과 기록 유산에 대한 기초 사료 편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제주학과 탐라역사문화의 보존·정립을 위한 독립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을 위해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현황과 미래

김태곤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정책팀장)



대동여지도 제주도 부분. 서울대 규장각 소장

지난 2021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

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원이 일본 천리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증보탐라지』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발간했다.(왼쪽)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간한 『탐라사개설서』(오른쪽)



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곧 법의 궁극적 목적이 ‘원형보존’에서 ‘지역발전 도모’로 변화된 것이다. 이것은 1962년 최초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0년여 동안 볼 수 없었던 국가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큰 변화이다.

### 역사문화권의 개념

‘역사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문화재청 사업과 국토교통부 사업이 혼용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3개, 문화재청 소관으로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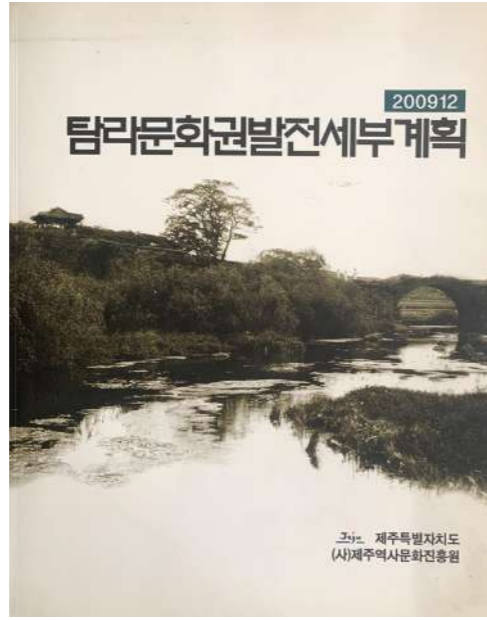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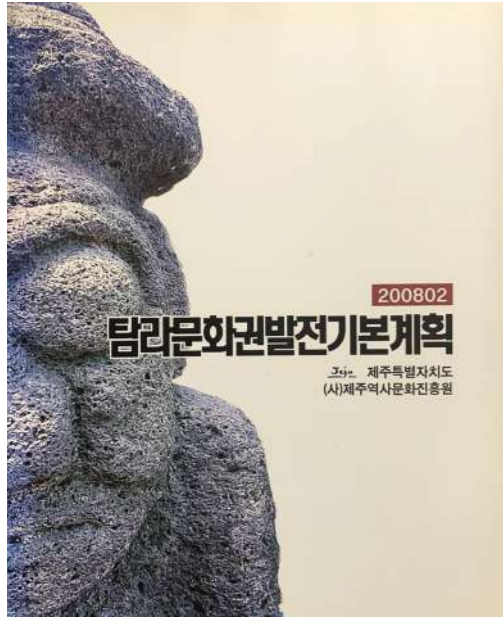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문화재청의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이었다. 기존의 개별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학술적, 지정학적인 역사 문화 환경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확장하면서부터이다. 일정한 권역 내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주요 유적을 연계하고, 이에 대한 정비·조사·연구 사업을 문화권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기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문화권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2012년 ‘제4차 문화권유적 종합정비 계획’을 마지막으로 일몰화 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문화권 사업은 1993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現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지역의 개발을 통하

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10개의 사업이 고시되어 추진되었으나 2010년 완료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 유적을 주요한 대상으로서 조사·연구·정비·보존·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지역을 아우르는 공간적, 상징적 의미로써 사용되었다. 법률상 용어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된 것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정의)

‘탐라문화’라는 용어가 본격 사용된 것은 2007년 발행된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 보고서』이다. 보고서에서는 탐라역사문화를 “제주섬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삶과 의식의 총체적으로 집적된 것으로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 제주가 아닌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공동체 단위인 독립국 탐라의 역사를 토대로 한 해양문화, 변방의 문화, 섬문화 전체”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탐라문화권’은 탐라문화가 형성되고 발현되는 지역 혹은 권역으로서, 동질의 문화를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2007년)』(왼쪽)과 『탐라문화권발전세부계획(2009년)』(오른쪽)

공유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문화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의 성과와 법률 반영의 의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탐라문화권정비 기본계획(2006년)』, 『탐라문화권발전기본계획(2007년)』, 『탐라문화권발전세부계획(2009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탐라사 정립을 위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고, 역사, 해양, 민속, 신앙 등 지역 전문가들의 기존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탐라문화권 발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실제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탐라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당초 입법안에는 ‘탐라’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탐라역사문화권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 비하여 학술적으로 고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국회와 협력하여 탐라문화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탐라문화권정비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법률 반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탐라역사문화권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국가단위의 정책이나 사업에 ‘탐라’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기관의 고대사 연구 또는 관련된 기초 조사조차 포함되는 사례

가 없었다.

법률이 제정되면서 탐라의 법률적 위상은 달라졌다.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탐라문화권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올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관련 기초 조사 연구’의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비로소 법률적 기반 위에서 탐라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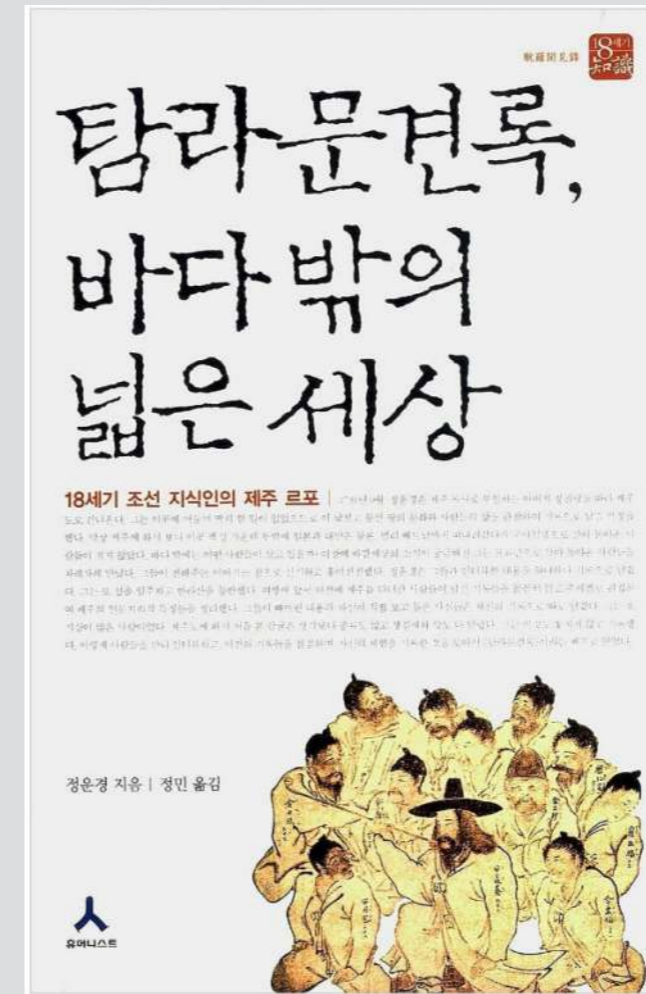
### 앞으로의 과제

‘국립탐라역사문화센터’ 건립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대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일부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면 제주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불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당장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만한 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문화권 기본계획’에서는 탐라문화권의 시기를 AD 3세기 ~ AD 10세기로 정하고 있다. 천 년 전 이 땅에 존재했던 탐라국에 대한 국가적 연구 사업이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탐라국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제주바둑리**

## 18세기 제주의 생활상을 엿보다!

강문중(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던 중 매우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키나와,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와 ‘최담석전(崔淡石傳)’을 합쳐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을 지었다.

뿐만 아니었다. 김정외의 『충암록』과 『제주풍토록』,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추정되는 『지지(地誌)』, 임재의 『남명소승』과 김상헌의 『남사록』 그리고 최부의 『표해록』 등의 일부를 발췌하여 『영해기문(瀛海奇聞)』으로 묶었다. 1732년 2월 23~28일 동안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여 『탐라기(耽羅記)』를 지었고, 1732년 4월 12~16일 동안 바닷가를 따라 여행하며 『순해록(循海錄)』을 남겼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록해 둔 제주의 풍물과 풍광에 기록하였는데, 이 글이 바로 『해산잡지(海山雜誌)』였다. 특히 그는 1730년 당시 제주 감풍의 종류를 상중하 3품으로 나누고 각각 5종씩 분류하여 총 15가지 품종의 굴을 색깔과 맛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놓은 『굴보(橋譜)』를 제작하였다. 이 모든 기록을 하나로 합쳐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이라는 제명으로 묶었다. 이 문헌은 실로 생생한 18세기 제주의 생활상을 290여 년을 건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 타자의 시선, 18세기 제주의 삶을 그리다

1731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32세의 지식인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정필영(鄭必寧, 1677~1753)을 따라 제주도로 들어왔다.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이었다. 그에게 조선의 남쪽 바다 끝에 있었던 제주도는 상당히 낯선 땅이었다. 게다가 목민관의 가족 자격으로 왔으니 제주도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지식인들이 으레 그러하듯 주변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

### 소중한 제주어의 흔적을 남기다!

『탐라문견록』에서는 김일남과 부차옹 일행이 유구국(琉球國)으로 표류했을 때 언급된 『안해 천자문』과 그 글자를 판독하는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상인들은 공식적으로 한글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이래로 제주어에 대한 지식인들의 기록과 함께 그들이 제주어에 대한 부정



##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와 시민배당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조선 표류민의 다양한 표류기. 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여회의 『유구표류기』와 이지항의 일본 홋카이도 표류지(『표주록』), 최두찬의 중국표류기인 『승사록』, 장한철의 유구(류큐) 표류기(『표해록』)(왼쪽), 18세기 서양인이 작성한 동아시아지도(오른쪽)

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억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봉수대가 있었던 오름을 ‘~망’, 덩불이 우거진 숲을 ‘곶’, 총을 사용하는 전문 사냥꾼을 ‘선방(善放)’이라고 기록하여 소중한 제주어와 ‘곶자왈’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 제주의 수렵문화를 엿보다

제주 신화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를 제외하고 제주 지역 수렵 문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문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정운경은 『탐라문견록』을 통해 소중한 제주의 수렵문화 일부를 전해 주었다. 18세기 제주 지역 전문 사냥꾼은 총을 사용하였고 주된 사냥감은 사슴, 노루, 꿩, 야생 돼지였으며, 사냥 후 소금과 간장을 쓰지 않고 꼬치에 꽂아 구워 먹는 모습을 통해 제주 신화와 마찬가지로 꼬치구이 형식의 요리법을 문헌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 장수 전통과 원인을 기록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장수 관련 기록 이후로 유사한 기록이 다양한 문헌에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라문견록』의 장수 관련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수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즉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태도가 장수의 비결임을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경제적·문화적 상황과 만만하지 않았던 자연 환경을 극복했던 제주인들의 삶의 태도를 알려 주었다.

### 18세기 제주 지역 감귤의 맛과 종류를 정리하다

『탐라문견록』 부록으로 기록된 『귤보(橘譜)』는 품질과 맛 등을 크게 상·중·하로 구분하고 각각 5종씩 배치하여 총 15종의 감귤을 정리하여 놓았다. 임제의 『귤유보(橘柚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 실린 ‘귤림풍악(橘林風樂)’, 조정철의 『귤유품제(橘柚品題)』, 김정희의 『감귤론』, 이강희의 『탐라지방설(耽羅職方說)』에 실린 ‘감귤론’ 등과 함께 전통 시대 감귤 종류와 그 맛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1732년 한 지식의 시선을 통해 험난했던 표류의 실상과 함께 소중한 제주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제주인의 삶의 원형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관하는 전래 돌그물인 ‘원담(갯담)’

### 공동자원의 섬, 제주

제주도는 ‘공동자원(common)의 섬’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열풍과 ‘관광 제주’의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제주의 대표적인 공동자원인 마을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동자원들이 자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명목 아래 토건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주 중산간의 토지가 잠식되었고, 마을의 공동자원은 약탈되었습니다. 공동자원의 약탈 이후 지역 공동체에 균열이 생겼으며, 여러 마을 공동체는 공동자원의 매각과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제주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공동자원을 상실하고 해체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며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공동자원과 기본소득, 다시

말해 시민배당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주목했고, 그 물적 토대가 지역에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몫의 일부로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동자원과 공동체도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 공동체와 공동자원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논의는 ‘나와 공동체, 공동자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을 둘러싼 공동자원과 그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것을 공동체로 돌리고, 자율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살아온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풍력자원 역시 공동자원이다

되기도 합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민배당이 지급된다면 공동체와 공동자원과의 관계가 되살아나고, 둘의 연결 고리는 더욱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바탕으로 둔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자원 이용의 정당성

공동자원의 시각에서 시민배당을 바라볼 때 매우 다양한 공동자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자원 이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주민들의 것인지, 왜 제주 도민들의 것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것인지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수익에 대해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을 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마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마을 주민들도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환경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

기본소득 논의의 권위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런던대학 SOAS 교수는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부과된 환경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

로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도입되어야 하며, 도입된다면 환경수용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의 재원 중 일부가 도민들에게 배당되면 환경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배당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의 자치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의 공동자원 관리와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공동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늘어나야 공동자원은 관리되고, 마을의 자치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기반이었던 공동자원을 상실한 공동체는 예로부터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공동자원은 단순히 공동의 자산이 아닌, 마을의 관계를 이어온 연결고리였습니다. 공동자원을 통해 끊어진 마을과 사람들을 연결해야 지역에서의 삶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바투리**

## 조선을 놀라게 한 제주의 전통 모피·가죽패션

고순희(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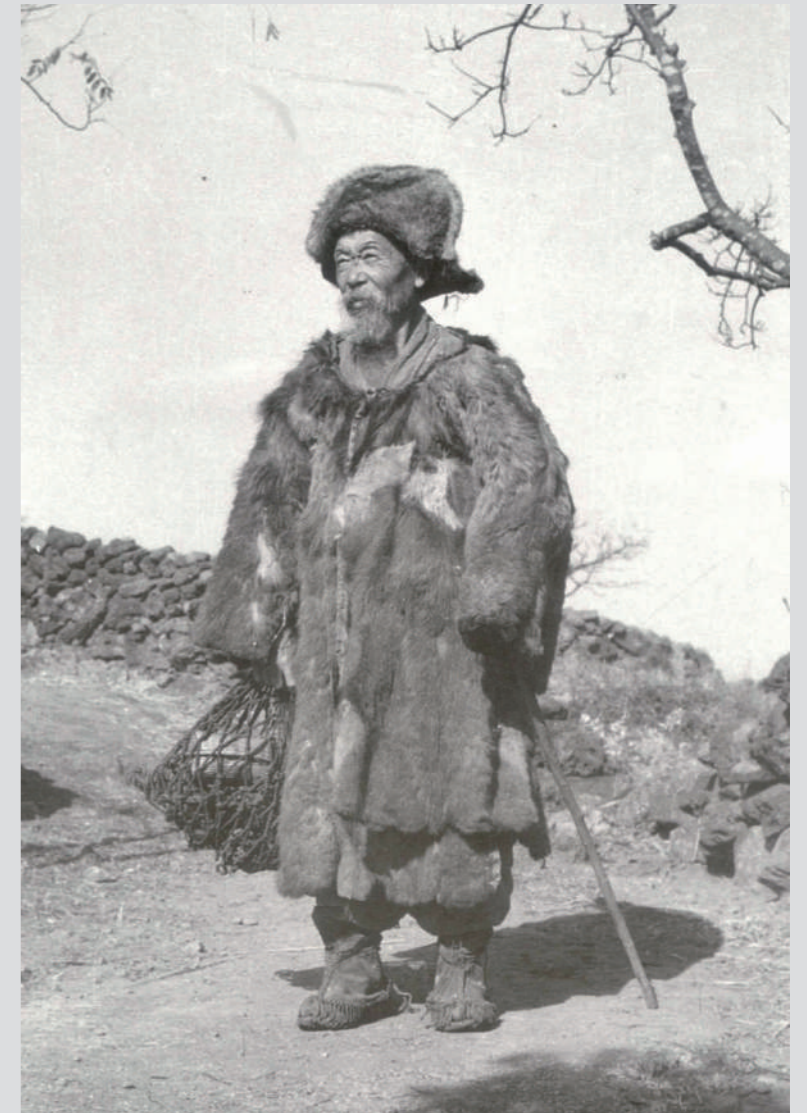
전통 복식에 있어 제주의 복식 패션은 한반도의 다른 여타 지역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제주만의 전통 복식의 큰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중 모피 패션과 가죽 패션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 한 유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정의 사람들은 물론 고을 선비, 교리, 노예, 미천한 군졸까지 황우의 털병거지, 오소리 모자를 항상 쓴다. 심지어는 입직 교리까지 이런 모양으로 현감의 대청마루에 출입한다. 흰 개가죽바지, 누런 개가죽 옷 같은 것은 나들이옷에 견준다.”

이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제주에 유배되었던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sup>1)</sup>

조정철은 정의 사람들의 패션을 보고 꽤나 놀랐던 것이다. 고을의 선비건 미천한 군졸까지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패션에서 털병거지와 오소리 모자는 중요한 패션이었다. 심지어 현감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의 모피 가죽 패션에 대한 애정은 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1776년 즈음 나들이 패션의 중요한 구성이 개가죽바지이고, 그것도 나뭇색을 갖춰 입었다는 사실을 상상하면 제주에 유배 온 선비의 놀람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패션은 기본적으로 그 생활 환경을 규정짓는 자연 환



정의고을의 가죽옷(제주도, 1996, 『제주 100년』, 제주시)

경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 패션은 한반도 여타 지역에 비해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척박한 풍

1) 고순희, 2011,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가죽옷 입은 사람들 (제주도, 1996, 『제주 100년』, 제주시)

죽 패션을 만들어냈다.

이와 관련한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앞선 조정철의 『정현영해처감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눈피(조천읍 와산리) 10리길 테우리(목자)들 절로 마을 이뤄 너와집 풍경 특이해 척박한 밭 온통 보리와 콩 개가죽 옷 보기에 너무 괴상한데 남방 사투리 듣기에 더욱 혼란스러워 말에 채 찍질하며 앞길 찾느라 등나무로 해와 달도 어둑어둑.”<sup>2</sup>

이쯤 되면 조선의 유학자 선비로서는 절대 이해 불가능한 독창적인 제주의 모피 가죽 패션이다. 선비가 접한 제주의 이국적인 패션은 제주 사투리와 더불어 몹시 당황케 한 모양이다. 읽는 이로 하여금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장면이다. 토와 제한적인 물자, 육지와 단절로 인한 의복 구성 재료의 절대적인 부족은 제주의 특징적인 자연 환경이었다. 때문에 옛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특징이 강했다. 대표적인 것이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한 복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제주에 유배 온 선비를 놀라게 한 제주의 독창적인 모피가

나오게 하는 장면이다.

또 다른 이들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동쪽 가마로 언덕에서 기다리는 세 관리 가죽 옷 입고 배를 맞는다.”(신광수, 『탐라록(耽羅錄)』)



1935년 이즈미 세이치가 촬영한 제주의 산촌사람 (왼쪽),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개가죽옷 (오른쪽)

“유생은 털병거지를 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김춘택, 『북헌집(北軒集)』)

“산노루 가죽버선에 개가죽 옷 입고 마른 역새풀에 걸터 앉아 억지로 위엄지어 벼슬길에 나간 일 없이 양반이라 뽐내기만 힘주어하는 자랑 별감 풍헌 지냈던 일” (김창현, 『영주풍아(瀛洲風雅)』)<sup>3</sup>

이처럼 제주의 관리들과 유생 그리고 “억지로 위엄 지으며 힘주어 뽐내던” 제주의 양반들도 즐겨 입었던(양반 사회에서도 그리하지 않으면 뒤쳐졌을) 가죽 패션은 제주의 중요한 패션 스타일이었다. 앞선 김창현의 『영주풍아』에 나오는 “산노루 가죽버선”은 또한 얼마나 실용적이고 멋들어진 패션인가.

제주에 유배 온 조선의 선비들은 제주의 전통 모피 가죽 패션이 신기했는지 이를 자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가죽옷에 관해 자주 기록하고 있다. 제주는 본디 소와 말

의 수가 많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에서 오랜 시간 가축과 생활해야 하는 목축업자들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모피 가죽류 의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주의 중요한 전통 패션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모피 가죽류 패션은 목축 분야에서 일하는 테우리(목자) 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청 관리들의 일상복이자 나들이복으로 그리고 일반 도민들까지도 애용하는 패션의 중요한 축이 된 것이다. 유배 온 선비들 입장에서 매우 “괴상”하고 독창적인 패션이었겠지만, 제주 사람들은 부족한 물자 속에서 실용적으로 찾았던 매우 자연스러운 패션이었던 것이다.

패션이란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개성 있는 멋스러움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적인 제주 패션의 한 축을 이룬 제주의 모피 가죽 패션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제주에 유배 온 선비들을 놀라게 한 제주의 전통 모피 가죽 패션은 바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제주바투리**

2) 고순희, 2011,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3) 고순희, 2011,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18.

# 2022년 상반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사업

## 제주학 아카이브 클라우드 서버 이전 완료 및 유튜브 채널 활성화

제주학 아카이브 서버가 2022년부터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했다. 이와 동시에 서버에 있던 동영상 파일은 모두 유튜브(YouTube)에 올라와 아카이브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방식으

로 바뀌었다. '제주학연구센터 바투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



##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우리 마을 옛사진' 공개 수집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980년 이전 제주 마을공동체의 생활상을 담은 옛 사진을 공개 수집한다. 마을의 경관 변화, 생업, 세시풍속, 의례, 마을 잔치, 운동회, 새마을운동, 학교 건립 등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마을의 옛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 일정

4월-9월 홍보 및 공개 수집

10월-11월 심사 및 시상

11월-12월 공개 수집 자료 아카이브 업로드 및 콘텐츠화

##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의 마을지' 수집 및 기록화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마을지'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제주의 마을지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주 마을공동체에서 온 정성을 모아 제작한 마을지를 수집하여 제주학 자료실 '살레'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제주학 아카이브에서도 디지털화된 제주의 마을지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제주의 마을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전시회 등도 추진한다.

## 제2회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 개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해 1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에 이어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시민 대상의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구축하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현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심화과정과 기초과정으로 개설된다.

\* 양성과정 일정

8월 심화과정 홍보 및 모집

9월 심화과정(5강) 운영, 기초과정 홍보 모집

10월~11월 기초과정(8강) 개설 운영

## 제주학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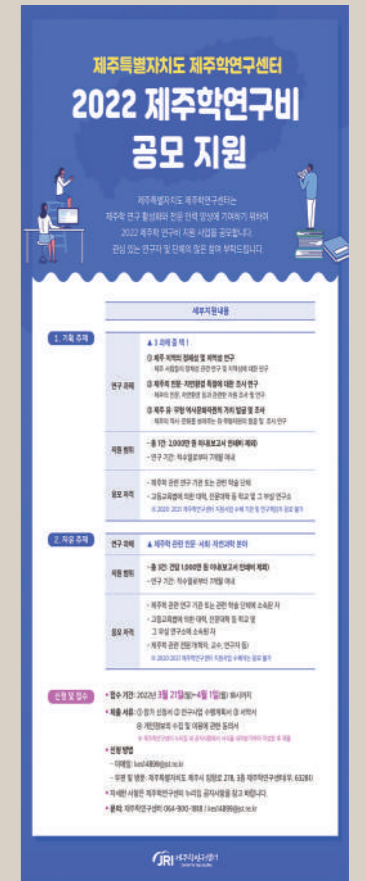
### 2022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제주학 연구비 지원 공모를 실시하였다.

올해 공모를 통해 자유 주제 3건(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 연구, 제주도 곳자왓지대의 지질학적 특성 정립을 위한 선행 연구 고찰과 향후 과제 발굴)과 기획 주제 1건(제주 한시 선집 발간-제주 한시 전체 조사 집계와 분류 및 활용 방안을 겸하여)이 선정되었다.

### 2022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제주학 출판비 지원 공모를 2차례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저술서 2건(탄소 중립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지역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제주도 사람들의 삶과 도구)과 번역서 1건(재일제주인의 문화적 기록, 『뽕조각』(가제))이 선정되었다.



## 민속문화 연구 및 마을기록화 사업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기본연구과제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을공동체에서 전승하는 제의문화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지원정책을 도출하여 마을 제의문화의 전승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멸실 위기에 처한 제주 민속문화 중 '마을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여 제주시 읍면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각 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포제와 이사제, 당굿, 동제, 풍어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된 자료는 보고서와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제주학 아카이브에도 '제주의 마을제' 콘텐츠로 구축될 것이다. 내년 3차 년도에는 서귀포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 동부 지역 사람들의 세시풍속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남원읍 의귀리 세시풍속 조사 모습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월별로 일목요

연하게 살필 수 있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총 4개년 사업으로 2021년 1차 사업에서 제주시 동부 지역의 세시풍속을 조사·정리한 바 있다. 올해 2차 사업에서는 서귀포시의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산읍 4개 마을, 표선면 3개 마을, 남원읍 3개 마을 총 10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이상 토박이를 만나 제주어로 구술하는 세시풍속을 조사한다. 현재까지 남원읍 의귀리, 신례리, 하례리, 표선면 가시리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여 자료로 구축하는 한편, 마을 별 세시풍속 자료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2(서귀포시 동부지역)』를 발간할 계획이다.

## 2022 마을 기록화 사업(해녀문화조사)

2022 마을 기록화 사업(해녀문화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제주 도내 마을 1곳을 선정하여 해녀 문화를 비롯한 제주 해안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올해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를 연구 지역으로 삼

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향후 보고서로 발간하고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 제주어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 생기나? 제주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안 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12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어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

초 자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어박물관 관련 자료 조사, 유사 박물관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관계자 회의(왼쪽),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사례조사(오른쪽)



### 제주 석공의 삶을 들여다보다 2022년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년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제주의 석공과 관련된 어휘, 민속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의 산담, 발담 등을 축조했던 장인들을 만나 제주의 돌과 관련된 제주어를 채록하고 사진, 영상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애월읍 유수암리, 조천읍 함덕리, 조천

읍 북촌리,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과거 석공 일을 했던 어르신들을 만나는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구좌읍, 남원읍, 성산읍 지역의 석공들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자료는 전사·대역하여 구술 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사진, 영상 자료 등은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애월읍 유수암리 조사 장면(왼쪽), 조천읍 북촌리 조사 장면(오른쪽)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에 박차를...  
2022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4년 발간을 목표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제주어 관련 전공자로 꾸려진 집필진, 자문 위원 등이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수정, 용례 추가 등의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2,000개의 표제어가 집필되었고, 600여 장의 사진 자료를 구축하였다. 하반기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새 어휘 집필과 제주어 구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에도 힘을 계획이다.

도민에게 필요한 제주어 정책 마련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제주어 정책의 지향점을 확보하고자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시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관련 전

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제주어 관련 성과를 정리하고 있고, 오는 7월에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화하고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드라마 속 그 제주어가 궁금해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제주어가 사용된 드라마의 인기 여파로 드라마 속 제주어 대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한편 공공기관 홍보물의 제주어 감수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 종합상담실'은 2022년 6월 현재까지 총 11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올해 말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네 번째 상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제주동부경찰서 홍보문 제주어 감수 자료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진행  
제주어 공모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과 함께 제주어 전승·보전의 일환으로 해마다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 글쓰기, 말하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제주어 글쓰기는 시·산문·제주어 대역 등의 형식(A4 3매 이내), 제주어 말하기는 5분 이내로 제작한 동영상(UCC)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포스터

제주역사 편찬 사업

전근대 호적 자료의 인적 정보 자료 구축과 그 활용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간의 조사된 호적 자료를 활용하여 미진했던 각 마을별 호적에 기재된 마을 호구 현황을 1차 전수 조사하고, 전근대 인구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전수 조사된 마을 이외에도 애월읍 수산리 등 호적 자료가 남아 있는 마을을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하여 자료

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적 자료에 나타난, 마을의 호적 작성 추진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인적 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제주 호적 연구의 기초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 마을 소장 절목(節目) 조사 연구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내 역사성을 지닌 가치 있는 마을 고문서에 대한 탈초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절목류와 같은 마을 소장 고문서는 18세기 중반~20세기 초 마을의 폐단을 혁파하는 내용을 각 리에 발급하는 형식으로 당

시 제주 마을의 재정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주 서귀포 지역 마을(대포동, 도순동, 하원동 등 동지역) 중심으로 소장 절목류를 조사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해제 번역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서 제주 기사(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 5개 주제어로 발췌)를 모두 수집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석까지 보충해 왕대별 역사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역사 자료총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V-영조대(영조 19년(1743)~영조 35년(1759))』 자료집

발간을 위한 교정 및 교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조 36년(1760)~영조 52년(1776) 동안 약 1,500여건에 달하는 제주기사만 발췌하여 역주 및 주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역주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향후 통일되고 표준화된 번역 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2 제주 고전 강독회

**2022 제주 고전 강독회**

**1. 초세(初世)의 이해**  
 일시: 양민서 (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내용: 초세의 기원, 구조 및 변화, 원인과 초세의 기초 이해  
 기간: 2022. 4. 15 ~ 5. 13, 오후 3시 ~ 5시 (매주 금요일) / 5회

**2. 단서 읽는 제주사**  
 일시: 홍기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지원단)  
 내용: 관찬사서 및 문집(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통감>, <통제사 제주사 기록을 넘어 통감>  
 기간: 2022. 5. 17 ~ 5. 25, 오후 3시 ~ 5시 (매주 목요일) / 5회

**3. <왕좌복합일기(南槎野乘日記)> 강독**  
 일시: 박종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단)  
 내용: <왕좌복합일기(南槎野乘日記)>의 역사적 배경과 <남槎錄>, <增補耽羅誌>, <破閑錄> 등 시기별 원전 자료를 종합해 강독했다.  
 기간: 2022. 5. 26 ~ 9. 1, 오후 3시 ~ 5시 (매주 목요일) / 8회

문의: 제주학연구센터 064-900-1825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2021 제주고전 강독회'를 운영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제주 고전 강독회'는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한문 원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제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南槎錄』, 『增補耽羅誌』, 『破閑錄』 등 시기별 원전 자료를 종합해 강독했다. 강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운영했다.

## 제주학 교료 · 정책 · 교육 사업

### 제주학의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손을 맞잡다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업무 협약 체결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2022년 4월 14일에는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제주학과 인문학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공유 활용, 제주학과 인문학의 성과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4월 21일에는 제주교육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제주학과 제주어 학술 연구, 관련 자료 수집, 교육 ·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자료 교환 및 공유 등에 합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주의 당 신앙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오세요 2022 제주 신화 학교: 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의 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를 주제로 '2022 제주 신화 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강좌는 작년(2021년)에 운영된 '제주 신화 학교: 일반

신 본풀이'의 후속 강좌로서, 제주 마을 곳곳에 녹아있는 당 신앙(본향당 · 일뿔당 · 산신당 · 해신당 · 요드렛당)과 그곳에 얽힌 신들의 본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제주학의 꽃, 도민과 함께 피우리라 제주학연구센터, 6월 24일 제주학 자료실 개방 행사 및 명사 초청 강연 개최

모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더 큰 결실을 위해 설립 10여 년만인 지난 2월에 독립 사무실을 마련,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제주학의 가치를 담아내는 '제주학 자료실' 개방 행사 및 제주학 초청 강연에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 6. 24(금) 14:00-16:30
-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2층 (제주시 영영로 278)
- 내용: 1부 제주학 자료실 개방 행사(14:00-14:30) 시낭송(이영선) · 축하공연: 문지윤(별오) 리버(가야) 2부 제주학 초청 강연(14:30-16:30) - 주제: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 - 강사: 유철민(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참가 대상: 누구나
- 참가비: 무료
- 문의: 064-900-18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2월 옛 '문학의 집 (제주시 임항로 278)'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내부 단장을 거쳐 6월 24일 '제주학 자료실 개방 및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제주학의 꽃, 도민과 함께 피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제주학 자료실 '살레' 개방 행사, 2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한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으로 꾸며졌다.

1부 제주학 자료실 개방 행사는 제주학연구센터 사무실이전 기념을 겸한 행사여서 자축의 의미가 컸다. 기념 행사와 함께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허영선 시인의 '섬의 근원이자 기원인 것들아' 축시 낭송, 첼리스트 문지윤 씨(반주 기타리스트 러피)의 축하 연주가 이어졌다.

2부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은 최근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를 출간한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 교수가 연사로 나서 그동안의 제주학 연구 성과와 연구 과정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은 제주학연구센터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도민들과 제주학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주학 연구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취지로 마련한 기획 행사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자와 도민들의 제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7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자료실 '살레'를 개방한다. 개방 시간에는 제주학연구센터 소장 도서 열람과 제주학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학 관련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방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7시이다.

**[협약 사업] 제주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협약 사업] 제주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도청 세계유산본부와 협약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 일소리> 영상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을 하귀리에서 전승하고 있는 겉보리 농사 관련 농요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주학 동향(2022. 1.~ 6.)**

**(사)제주학회 '54차 전국 학술대회: 제주의 교육과 사람들' 개최**

(사)제주학회(회장 이영돈)는 2022년 6월 17일 제주대학교에서 '54차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제주 역사 속 교육 활동과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학년도 전통적 편지쓰기 대회' 시상식 개최**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소장 배영환)는 4월 한 달동안 도내 소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 편지쓰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곶자왈공유화재단 '2022 찾아가는 곶자왈 마을 교육' 개최**

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은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곶자왈 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곶자왈의 지형 및 지질 다양성, 생물 다양성, 역사문화 유산의 다양성과 가치 등을 주민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지속적인 곶자왈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4·3평화재단 '다량쉬굴 유해발굴 30주년 특별전 '다량쉬 30' 개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다량쉬굴 유해발굴 30주년을 맞아 4월 11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전관에서 "다량쉬굴 유해발굴 30주년 특별전 '다량쉬 30'"을 열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변덕승)는 제주목 관아의 역사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원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은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주민·민간단체 협력으로 별방진 역사경관 회복**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변덕승)는 도 지정 문화재 「별방진」의 역사경관 회복과 성곽 형체 확인을 위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덩굴 정비작업을 실시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우리마을 역사지킴이, 역사문화 돌봄센터, 도 세계유산본부가 덩굴정비를 통해 별방진성의 윤곽이 드러나 잔존 구간의 흔적과 원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녀박물관, 2022년 해녀박물관 문화갤러리 전시 '바당과 땅사이, 해녀건축'**

해녀박물관은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 제주출신 건축가인 강준호씨가 성산, 하도, 삼양 지역의 해녀 작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해녀 관련 건축물 도면과 현장에서 체험한 해녀들의 생업과 환경을 표현한 그래픽 작품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감시와 처벌, 갈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국내학술대회 개최**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3월 11일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감시와 처벌, 갈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쿵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세 번째다.

**국립국어원, 내년까지 '제주어 디지털 전시관' 구축 계획 발표**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지난 2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언어문화 자료 디지털 전시관'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제주어 전시관을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지역별 지역어와 지역어 사용자에 대한 인식·태도, 지역어 사용 환경, 지역어 보전 활동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어보전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이사장 이종실)는 3월 26일 제주학연구센터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새로이 개소, 현판 개막식을



진행했다.

### 제주어연구소, '2022년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 운영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제주어로 제주 사람들 삶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들로 진행한다.

###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 노래마당 개소식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애리)이 지난 4월 13일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 노래마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2015년 창단한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 제주 어린이들이 제주의 문화와 이야기를 제주어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의 합창단이다.

### 한라도서관, 제주어 이야기 어른신 양성과정 운영

한라도서관(관장 김숙희)은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제주어 이야기 어른신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60세 이상 어른신들이 제주어 그림책, 전래동화 등을 어린이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번 강좌의 강사는 동화연구가이자 문학예술강사인 송임선 씨, 제주어 시인 김정희 작가, 캘리그라피 강사 김효은 씨가 함께 진행한다.

### 서귀포도서관, 제주어와 함께 그림책 나들이 개강

서귀포도서관(관장 현관주)은 어린이들이 제주어와 함께 독서활동을 하며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제주어와 함께 그림책 나들이' 강좌를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했다.

### 남원중, 제주어 탐구반 학생들의 제주어作品集 발간

남원중학교(교장 강창우)는 '제주어 탐구반' 학생들의 작품을 엮어 만든 『제주인의 삶. 숨. 걸. 제주어에 물들다』라는 책자를 지난 1월 발간했다. 설문대 할망, 감은장 아기 등의 제주 신화에 대한 학생들의 협동 작품과 제주어로 개인 작품들이 수록됐다.

### 남광초, 『사과 소곱 죽은 친구』 제주어 동시집 발간

남광초등학교(교장 신금미)는 지난 1월 제주어 동시집 『사과 소곱 죽은 친구』를 펴냈다. 이 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에 관심을 넓히고 제주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어 동아리 어린이들의 글을 담았다.

### 제주어 동시그림책 『폭낭알로 놀레온 곰새기』 발간

제주 출신 김정희 시인은 동시그림책 『폭낭알로 놀레온 곰새기』를 펴냈다. 이 책에는 제사 때 먹는 음식, 계절마다 풍습들을 비롯해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 모습들이 담겨 있다.

### 양전형 씨, 『제주어 용례 사전3』 발간

양전형(전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씨는 5월 『제주어 용례 사전3』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20년 『제주어 용례 사전1』, 2021년 『제주어 용례 사전2』에 이은 세 번째 용례 사전으로 3,200여 개의 어휘를 제주어 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김지홍 교수, 『제주 방언 통사의 몇 측면』 발간

김지홍(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제주 방언 통사의 몇 측면』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제주 방언이 한국어와 공통 형태를 이용하면서도 다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 제주어연구소 기관지 제5호 『제주어』 발간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는 기관지 『제주어』 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사진으로 읽는 제주-제주어', '논문', '제주어 이야기', '지상전', '구술자료', '취보'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엮였다.

# 아름다운 제10회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가 함께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을 엽니다. 아름다운 제주 말과 글을 찾고 전승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 기간

2022. 5. 2.~9. 30.(5개월)

## 공모 대상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 연령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학생 부문/일반 부문(대학생 포함)

## 공모 형식과 분량

글쓰기(시/산문/대역)-A4 3매 이내  
말하기(동영상)-5분 이내

## 공모 주제

자유

## 응모 방법



▲ 신청서 바로 가기

링크 접속 후 신청서 제출  
<https://docs.google.com/forms/d/1WZIFzaPhIE8U7TQRv7231BbDPCXWBZVwiFnQWor0IHc/edit>

## 시상식

- 일시: 2022. 11. 4. 15:00
-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2층
-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내역

대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100만원 상당 상품권
<b>일반 부문</b>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b>학생 부문</b>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문의

제주학연구센터(평일 10:00~17:00)  
전화 064-900-1829 전자우편 [jejeuo0515@gmail.com](mailto:jejeuo0515@gmail.com)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학연구센터([www.jst.re.kr](http://www.jst.re.kr)) 누리집 참조

제주학 관련  
도서 기증  
수놓음

#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자료실 살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6월 제주학 자료실 '살레'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에 제주학 자료실 '살레'를 더욱 의미 깊게 만들고자, 제주학 관련 도서를 기증받는 수놓음을 시작합니다. 제주학 관련 도서라 함은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생태 등을 담은 자료집, 보고서, 마을지, 단행본,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능동적 조사, 연구, 창조 활동 결과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주 관련 도서를 기증 받습니다.

기간	2022.7.25. ~ 11.30.
기증 대상	제주학 관련 도서(자료집, 보고서, 마을지, 단행본, 사진 등)
분량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증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제출처	<a href="mailto:jhcho@jst.re.kr">jhcho@jst.re.kr</a>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제주학연구센터
기증자 특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10권 이상 기증한 분들은 제주학연구센터 기증회원으로 모셔, 센터 기관지와 발간 도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제주학연구센터 064-900-1819